

# 벌써... 설 선물 “빨리 살수록 저렴”

### 이마트, 1월 11일까지... ‘공동 펀딩 구매’·상품권 증정 등 혜택 다양 롯데마트, 물가안정 세트 판매... 홈플러스, 행사카드 최대 40% 할인

내년 ‘1월 설날’을 앞두고 대형마트 3사가 선물 사전 예약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 저렴하고 실속있게 선물을 하기 위한 ‘가성비’ 상품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마트는 1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2023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올해 설에는 44%로 크게 늘었다. 올 추석 비중은 매출 절반에 육박하는 49%까지 올랐다. 이마트는 선물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고객 수요를 겨냥해 ‘공동 펀딩(모금) 구매’를 벌이기로 했다. 특정 상품에 필요한 인원(각 1000명)이 모이면 구매가 성사되는 방식이다.

지난 추석 때 처음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3종에 이어 이번 설에는 올리브 오일 꾸러미 2종이 추가됐다. 공동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이마트 모바일 앱에서 공동 구매를 누르면 된다. 1인당 3개 한정 구매할 수 있다. 선정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이며, 구매 기간은 1월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이다. 이마트는 선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과와 배 등 제수용품 위주였던 과일 선물을 사인머스켓, 키위, 망고, 한라봉 등 인기 과일로 확대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친환경 경향에 맞춰 ‘저탄소 인증’ 과일 선물 종류는 2년 전의 2배 수준인 11종으로 늘렸다. 설 선물 사전 예약 할인을 받으려면 행사카드 14종을 활용하면 된다. 구매 고객에게는 금액대별로 최대 15% 상당 신세계상품권을 줄 방침이다. 특히 신청을 앞당길수록 더 많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2만~3만원대 과일 꾸러미와 5만원대 호주산 쇠고기 외에도 프리미엄 영광 참굴비 세트 등 ‘고급 선물’ 선택 폭도 넓혔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최대 30% 할인 혜택과 상품권 증정, 엘포인트 회원 특별 할인 등을 내건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전국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아예 ‘물가안정 기획 세트’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9만9000원 한우 세트, LA갈비 세트 등을 선보인다. 이외 한우 등심, 채갈 등 인기 부위로 구성된 ‘프리미엄 선물’도 마련했다. 롯데마트도 한우 선물 포장에 ‘친환경 아이스팩’을 도입하며 ESG 선물 세트를 확대했다. 홈플러스도 사전 예약을 일찍 하면 혜택을 더 주는 ‘아침형(얼리버드) 고객’ 대상 판매를 오는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MZ세대가 반길만한 콤팩트 세트, 홍삼 간편 건강기능식품, 흡수·흡수 선물 등이 눈에 띈다. 홈플러스에서 행사카드로 설 사전 예약 결제하면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감귤 한박스 7990원 특판 지난 30일 롯데슈퍼 직원들이 오는 6일까지 3만 상자(3.5kg) 한정 판매하는 제주 햇조생감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슈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수출 난항을 겪고 있는 감귤 농가를 돕기 위해 행사 기간 롯데마트·제조공법인·산지 농협이 할인액을 3분의 1씩 부담해 한 상자 7990원(행사 카드 결제)에 제주 감귤을 판매한다. <롯데슈퍼 제공>

## MZ세대 ‘인증샷’ 욕구 뽐뽐... 보해 ‘여수밤바다’ 인기

### ‘로코노미’ 대세... 매출 2배 급증 여수 낭만포차 점유율 80% 차지

MZ세대를 중심으로 로컬(Local, 지역동네) 기반 상품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해양조가 출시한 소주 ‘여수밤바다’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여수밤바다’는 지난 7월 말 리뉴얼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평소 판매량의 두 배를 넘어섰다.

도 리뉴얼 출시 3개월 만인 10월 말에는 지난해 1년 전체 판매량의 절반(50%)을 뛰어 넘는 등 최근 급속도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출시된 보해양조의 로컬브랜드 제품 ‘여수밤바다’는 관광명소 여수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여수를 상징하는 돌산대교와 반짝이는 별빛을 이미지화 시킨 아름다운 라벨을 부착,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9도에서 16.5도로 낮추고 보해가 개발한 새로운 레시피를 적용해 여수지역 음식, 특히 해산물과의 짝꿍하게 어울리는 맛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여수밤바다’는 전남지역 대표 관광지인 여수를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여수를 찾는 여행객 대다수가 포장마차나 식당에서 ‘여수밤바다’ 제품을 찾고 있다. ‘여수밤바다’는 여수 낭만포차 거리 내 소주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여수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지역 대표 소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보해양조는 올해 7월 7월에는 팝아트 작가 기안84와 손잡고 그의 작품 4점을 ‘여수밤바다’ 전면 라벨에 삽입하며 리뉴얼 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소주 ‘여수밤바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각 지역과 동네를 기반으로 한 상품 및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각 지역에 위치한 여러 카페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가 출시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는 점에서 기념품 등 여행객들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제주지역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제주 특화 음료를 개발·판매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강원도산 감자로 만든 감자 모양

의 빵 ‘춘천 감자빵’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며 서울, 대전, 광주 등 주요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있는 등 춘천의 명물로 성장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최근 기안84가 자신의 작품이 담긴 ‘여수밤바다’에 애정을 갖고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기안84와 협업해 만든 4개 라벨 중 두 번째 라벨 ‘육망의 지하상’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나 여행지로 찾은 지역의 스토리 및 이미지가 반영된 특별한 제품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여수밤바다’에 거는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귀뚜라미 ‘여성이 뽑은 좋은 기업’ 22년 연속 선정

### 친환경·사회공헌 등 모범 경영

귀뚜라미가 대한민국 여성 소비자가 선호하는 좋은 기업으로 22년 연속 선정받았다.

귀뚜라미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하는 ‘제25회 여성이 뽑은 좋은 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가정용 보일러 부문 22년 연속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여성이 뽑은 좋은 기업 대상’은 소비자 존중, 친환경, 사회공헌, 상생경영 등 모범적인 경영 활동으로 소비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을 여성 소비자와 전문위원단 평가를 통해 선정, 발표하는 수상제도이다.

귀뚜라미는 친환경 보일러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며 기후위기 해결과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 콘텐츠 보일러+저녹스 일반 보일러’로 100% 친환경 보일러 제품 생산 공정을 구축했다. 정부, 지자체와 함께 ‘가정용 저

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보일러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50년, 온수 매트 10년 비결을 바탕으로 난방 매트 시장에서도 혁신 기술을 도입한 신제품을 출시해왔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 매트 온돌’은 1세대 전기 매트의 유해 전자파와 화재 그리고 2세대 온수 매트의 누수, 세균, 물 보충 등 소비자들이 겪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귀뚜라미는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귀뚜라미 장학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학술연구 지원 사업, 교육기관 발전기금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귀뚜라미 보일러 점검 사업 등 37년간 480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9582 - 7400